

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연구

— 천관(天觀)·지관(地觀)·인간관(人間觀)을 중심으로 —

Comparative Study on Indigenous Modernity
of Donghak Thought and Daesoon Thought

Focusing on the Trinity of Heaven, Earth and Man

指導教授 高南植

大眞大學校 大學院 大巡宗學科

崔原懌 | 2024년 7월

目次 | Table of Contents

- I. 서론**
Introduction
- II. 자생적(自生的) 근대성과 리미널리티**
Indigenous Modernity and Liminality
- III. 동학사상의 자생적 근대성과 작란(作亂)의 리미널리티**
Donghak: Modernity and Liminality of Disorder
- IV.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과 치란(治亂)의 재활성화**
Daesoon: Modernity and Revitalization of Order
- V.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**
A Comparison of the Two Thoughts
- VI. 결론**
Conclusion

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

학술적 과제

- 동학사상은 주로 종교사상으로만 연구되어 왔으며 "동학(東學)"이란 명칭에 내포된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과 철학적 사유 방법론으로서는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못함
- 대순사상 또한 "참동학"을 주장했음에도 동양의 철학적 사유 방법론으로서 연구가 부족함

시대적 배경

- 서구적 근대성이 마테오 리치가 서양으로 전파한 동양문명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이 최근 재조명됨
- 동양에서 근대화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유교가 서구에서는 근대성의 기원이었음이 밝혀짐

현대적 의의

- 서구적 근대문명이 초래한 핵무기·환경문제 등 인류 절멸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생적 근대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
- 서구의 탈근대성(post-modernism) 논의가 뜻밖에서 대안을 찾는 상황에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재주명 필요

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현대적 재평가

서양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 재발견

- 베버는 근대성의 기원을 칼빈의 구원예정설이라 주장했으나, 실제로는 마테오 리치가 전파한 중국의 유교문명에서 시작됨
- 주경지, 프랑크, 홉슨 등 동서양 학자들이 서구 계몽주의의 동양적 기원을 재조명하는 연구 진행 중

온라인 자료 개방과 학술적 재평가

- IT 기술 발달로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구 근대성의 여명기 자료 무료 개방
- 은폐되었던 서양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이 기록물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짐

동학·대순사상의 새로운 위상

- 프랑수아 줄리앙 등 탈근대성 이론가들이 서구 근대성의 대안을 동양에서 찾는 연구 진행
- 근대 문명의 위기와 대안적 근대성으로서 일찍이 종교적 회귀를 강조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현대적 가치 부각